

‘낙후의 대명사’ 광주·전남...드디어 발전 기회 움튼다

오픈AI·SK, 전남에 데이터센터 구축
금지사 “전라도 1천년 역사 경천동지”
광주시 “AI생태계 발전 중요 발걸음”
핵심현안 국정과제 대거 채택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전폭 지원 약속
향후 구체화할 발전 전략 귀추 주목



금지사 ‘감격의 눈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역사적인 오픈AI와 SK 합작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전남 투자 환영문을 발표하기 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낙후의 대명사’ 광주·전남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쌍’이 드디어 움튼다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핵심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폭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샘 알트만 오픈AI CEO, 최태원 SK회장과 함께 전남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구상을 발표한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의 기대감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답을 하겠다’고 약속해온 만큼 정부와 민주당이 구체화할 광주·전남 지원 대책과 발전 전략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글로벌 AI 선도기업 오픈AI와 SK가 전남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하기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기념비적 발표는 지난 1일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샘 알트만 최고경영자(CEO)간 역사적 회동을 통해 이뤄진 성과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AI의 샘 알트만 CEO와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오픈AI는 ‘조인트 투자’를 통해 SK와 전남에, 삼성과 포항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각각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오픈AI와 SK의 전남 데이터센터 구축은 전남도가 그동안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 비전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세계적인 기업인 오픈AI의 혁신적 기술 역량과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종합 역량이 결합되면서 전남에 구축될 데이터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AI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기업 유치 ▲AI 인재 양성 등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주거·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학교 건립 등 글로벌 친화 환경을 조성해 외국 전문가와 글로벌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우주산업, 스마트 농수산업, 바이오 등 연관 산업을 융복합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전라도 천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역대급 쾌거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는, 한마디로 경천동지(驚天動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놀라울 정도로 빨리 약속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으로 대단히 어려운 국면 속에서 세계가 보란 듯이 초대형 스타게이트 투자유치를 성사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해안과 전략, 압도적인 추진력과 결합해 이뤄진 역사적인 초대형 투자가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대변인 명의로 ‘광주는 국가 주도, 전남은 민간 주도’ 제목의 입장문을 내 “오픈AI 전용 민간AI데이터센터 전남 구축을 중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AI산업의 저변을 넓힐 기회이자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광주시는 “광주에는 곧 국가 주도의 ‘국가 AI컴퓨팅센터’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광주는 국가 주도, 전남은 민간 주도 AI인프라가 시너지를 이뤄 대한민국 AI 중심도시로 속도감 있게 나아가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면에 계속

/김재정·변은진 기자



‘고향의 情’ 안고 일상으로... 추석 연휴 옛새때인 지난 8일 오전 가족과 명절을 보낸 귀경객들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광주송정역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열차에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13일부터 이정부 첫 국감...여야 혈투 예고

광주·전남 ‘광주범원·검찰청’ 21일 시작
민주 “尹 잔재 청산” vs 국힘 “국정 난맥”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6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인다.

광주·전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지방법·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2일에는 교육위원회가 전북대와 대구교육청에서 전남대·전남대병원, 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23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 호남지방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문제위 국감은 국회에서, 기재위 국감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다.

2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국립광주과학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수광양항만공사 감사를 마지막으로 광주·전남지역 국정감사 일정은 마무리된다.

격년으로 열리는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경찰청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국정감사는 지난해 열려 올해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국감에서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를 동시에 겨누며 물고 물리는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12·3계엄을 내란으로 규정,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특히 강도 높은 송곳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출범 1년 만에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으며 국감에서 낱알이 파헤쳐

졌다고 맞불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문제 삼는다는 전략이다.

국감 최대 격전지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여당 내 강성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불을 지피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방통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으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Today

‘글로벌 이주 허브’ 광주·전남대전환... 5면

동인선생의 역경경좌·수천수 15면

최형우·박찬호, 2년 연속 ‘황금장갑’ 도전 16면

한 사람의 보험사와 전국민,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과수익 보장
보험가입 필수
http://x&3@%NNT
알바 했는데 해불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IGFA보험GA협회